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150th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11학년도 수능 27~31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 많진마는
 ㉠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옛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A]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쏘냐.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수간모옥 :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 우거진 숲.

(나) 뒷집의 술쌀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찻다 [B]
 주는 것 마구 찢어 쥐어 빚어 괴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어와 저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느냐
 ㉢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뉘싯대를 흘던질 제
 ㉣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헛글고 싯근*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C]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밀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김광옥, 「울리유곡(栗里遺曲)」-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싯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다) ㉠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오로지 원림(園林)이나 누정(樓亭)뿐이겠는가?
 천하의 사물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원림이나 누정의 경우가 특별히 더 그런 것뿐이다.
 서울에서 수십 리 이내의 가까운 지역에는 사람들이 조성한
 별장과 농장이 많다. 어떤 것은 강가를 따라 있고, 어떤 것은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어떤 것은 산을 등지고 계곡에
 걸쳐 있기도 하다. 제각기 멋진 풍경 하나쯤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산수(山水)를 평가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저쪽 경치를 들어다 이쪽 경치와 비교하면서 앞다퉈 제가 본
 풍경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정말 웃을 노릇이다.

빼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천하의 명소가 어디
 한두 군데에 불과하랴? 또한 그 고정된 견해와 평가가 있겠
 는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바뀌고, 지경(地境)
 의 변화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또 같은 장소라 해도 경관이
 차이가 나고, 같은 풍경이라도 때에 따라 변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모자라다며 제각기 자랑
 하고, 어느 것이 뛰어나고 어느 것이 뒤진다며 제각기 평을
 내린다면, 이것은 맛 좋은 술에게 소금처럼 짜지 않고 왜 맛이
 좋으냐고 혼내는 격이요, 양고기와 돼지고기에게 채소와 과일
 처럼 담박한 맛을 내지 않고 왜 그렇게 기름진 맛을 내느냐고
 화를 내는 격이다. ㉡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하의
 이름난 산과 빼어난 승경(勝景)을 모조리 자기가 소유한 뒤에
 라야 비로소 흡족해 할 것이다. 그러면 작은 불거리에 구속
 되어 큰 불거리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나 않을까?

- 박규수, 「범희문회서도원림(范希文懷西都園林)」-

2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풍자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의 관점과 거리가 먼 것은?

—<보 기>—

(다)는 범희문이라는 사람이 화려한 저택을 거부하고 겸허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연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작가는 세속적 소유를 거부한 범희문의 태도에 기대어 당대 사대부들의 삶에 드러난 속물적 태도를 비판한다. 나아가 대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① ㉠ : 산림에 묻혀서 지락을 아는 것
- ② ㉡ : 물아일체 속에서 흥을 느끼는 것
- ③ ㉢ : 갈대숲을 서성이며 고기를 엿보는 것
- ④ ㉣ : 만호후를 부러워하지 않고 청흥을 느끼는 것
- ⑤ ㉤ : 구속에서 벗어나 시원함을 느끼는 것

29. [A]와 [C]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C]에서 봄은 모두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한다.
- ② [A]는 [C]와 달리 봄을 겨울과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C]는 [A]와 달리 의인화를 통해 봄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A]의 봄은 흥겨움을, [C]의 봄은 서글픔을 불러일으킨다.
- ⑤ [A]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C]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봄을 묘사하고 있다.

30.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출하고 소박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②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③ 농가와 자연을 분리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 ④ 공동체를 위한 헌신적 삶이 드러나 있다.
- ⑤ 숭고한 삶에 대한 지향이 드러나 있다.

31. ㉞와 같은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휴양림을 늘 내 곁에 두고 보고 싶으니 집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야겠어.
- ② 주말에 지리산에 갔는데 갈 때마다 모습도 다르고 느낌도 달라서 참 좋았어.
- ③ 가족 여행 때 다녀온 강릉 경포대의 진면목을 알려면 「관동별곡」을 읽어야 해.
- ④ 단풍은 설악산이 최고라 하니 단풍을 구경하려면 당연히 설악산으로 가야 해.
- ⑤ 내가 한라산을 가 보고 싶은 이유는 유명한 산악인들이 추천하는 명산이기 때문이야.